

인도

제 1 결집: 삼장의 결집

- 결집이란: 합송'(合誦)이라고도 함. 역사적으로는, 붓다 사후에 경전의 내용을 함께 암송하여 공인하고 교의적 논란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집된 모임.
- 시기: 붓다 사후 첫번째 우기(雨期)
- 장소: 라자그리하(지금의 인도 비하르 주 라지기르)에서 개최
- 삼장의 결집
 - 율: 붓다가 제정한 승가 규칙을 담은 율장(律藏)의 편집은 우팔리 장로의 책임하에 이루어졌고
 - 경: 교훈적 경구들을 모은 경장(經藏)의 편집은 아난다 책임하에 이루어졌다 아난다 송출:
 - 승인: 그런 후 정신적 수련의 최종 단계에 이른 500 명의 아라한이 함께 승인된 내용을 암송하였다. → „여시아문 일시불 재 사위국 기수급 고독원 여 1250 인 ...“

제 2 결집: 근본분열

- 시기: 붓다 사후 100 년경
- 동기: 바이살리 승려들이 따르던 계율이 느슨하다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
- 장소: 에 바이살리(비하르 주)에서 소집되었다.
- 결과: 근본분열 (상좌부(Theravāda) ↔ 대중부 (Mahāsāṅghika))

제 3 결집:

- 시기: BC 247 년경, 즉 아소카 왕 재위 기간중
- 동기: 근본분열에 따른 지말분열로 인한 포살의례의 문제점
- 장소: 그의 왕국 수도였던 파탈리푸트라(지금의 파트나)에서 개최되었는데, 이 결집은 상좌부 계통 회중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.

➤ 대승(大乘)불교와 소승불교

근본불교	→	부파불교	→	대승불교	→	밀교
부처님 ……>>>				서기전 1 세기경 ……>>>		
		소승불교		대승불교		
자각각타(自覺覺他)				자리아타 (自利利他)		

→ 수행자중심	→ 상구보리 하화중생 → 보살사상 → 실천덕목: 육바라밀
4 아함경 (= 팔리경전) 1. 장아함 2. 중아함 3. 잡아함 4. 증일아함	금강경, 묘법연화경, 반야경, 화엄경
스리랑카 · 미얀마 · 태국	중국 · 한국 · 일본 · 일본

중국불교

1. 전래: 서력기원 전후

- ✓ 처음 전해진 불교는 인도불교가 아닌 서역불교였다.

2. 경전번역 (산스크리트 → 한문)

- **역경의 시작:** 후한 (25~220) 말인 2 세기 후반 에는 서역과 인도에서 온 역경승들에 의해 불경이 한역되기 시작하면서 불교는 중국에서 확실한 기초를 형성하게 되었다.
- **역경자:** 서역의 구자국 출신으로 후진 (389~417)에서 활동한 구마라습(344~413)과 당나라 (618~907)의 현장(602~664)이 있다.

3. 선불교

선종은 중국에서 5 세기부터 발전한 대승불교의 한 흐름으로서, 불교의 한 종파로 성립된다.

선(禪)이라는 낱말은 산스크리트어 “**디야나**” 를 중국에서 선나(禪那)로 음역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, 선나(禪那)의 줄임말이다.

➤ 선종의 교의 및 특징

선종의 가장 큰 목적이자 가장 핵심적인 교의는 **견성성불(見性成佛)**이다. 즉, 선종은 모든 인간이 내면에 본래부터 부처("본성本性=불성佛性")를 지니고 있다고 믿으며, 수행을 통해 자기 내면에 있는 본래의 부처를 발견하여("견성見性") 열반에 이르는 것("성불成佛")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.

수행면에 있어서는, 좌선 또는 참선을 중요한 수행 방법, 즉 정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선종의 특징이다.

선종의 교의적·실천적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구는 "이심전심(以心轉心)·견성성불(見性成佛)·불립문자(不立文字)·교외별전(敎外別傳)"이라 할 수 있다. 이 문구들은 선종이 선종 이외의 불교로서의 교종(敎宗)과 현저하게 다른 독자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.

➤ 선종의 기원

선종의 전통에 따르면, 선종의 기원은 고타마 붓다가 영산회에서 말없이 꽃을 꺾어 보였을 때 제자들 중 오직 마하가섭만이 그 뜻을 이심전심으로 이해하고 미소지었다는 염화미소 고사에 있다. 선종의 전통에서는 마하가섭을 선법을 받아 이어준 제 1 조로 높이 받들고 있다.

➤ 선종의 기초

그뒤 470 년경 또는 520 년 에 달마(?~528)가 남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선(禪)을 전파한 것이 선불교의 직접적인 시초이다. 달마는 달마선, 전통의 1 대 조사로 불린다. 선종(달마선)의 전통에 따르면 달마는 마하가섭으로부터 이어져 온 선종의 제 28 조이며 중국 선종의 제 1 조이다.

- 달마 → 제 2 조 혜가(487~593) → 제 3 조 승찬 (?~606) → 제 4 조 도신 (580~651) → 제 5 조 홍인 (601~674) → 제 6 조 혜능

➤ 남종선·북종선·

제 5 조 홍인	신수(?~706)	북종선(北宗禪)	점오(漸悟)선을 표방	빨리 쇠퇴
	혜능(638~713)	남종선(南宗禪)	돈오(頓悟)선을 표방>>>>

초기에는 북종선이 성했으나 후에는 남종선이 유력해져 남종선 계통이 중국선의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.

➤ 남종선의 융성

1) 백장청규(百丈淸規)

백장회해(749~814)가 선원에 있어서의 집단생활의 규범이 되는, 후대에 《백장청규(百丈淸規)》라고 불린, 청규(淸規)를 만들었다.

2) 임제종·조동종

남송(1127~1279) 초기에 모두 남종선에 속하는 **임제종과 조동종**으로부터 각각 **간화선(看話禪)**과 **묵조선(默照禪)**이 성립되었다.

간화선은 공안(公案)을 화두(話頭)로 하여 본성을 구명하려 하는 선풍으로 임제종의 대혜종고(1089~1163)에 의해 주창되었다.

묵조선은 묵묵히 앉아 있는 곳에 스스로 깨달음이 나타난다는 선풍으로 조동종의 평지정각(1091~1157)에 의해 주창되었다.

➤ 선종의 한국 전래

선종의 한국 전래는, 당나라의 서당 지장에게서 법을 받아 784년(선덕여왕 5년)에 신라로 귀국한 도의를 시조로 하는 가지산문에서 시작되었다.